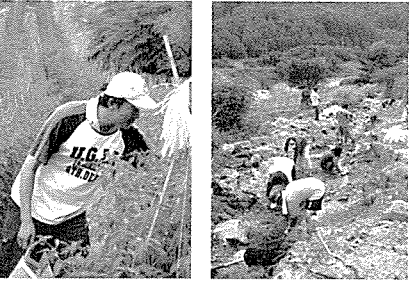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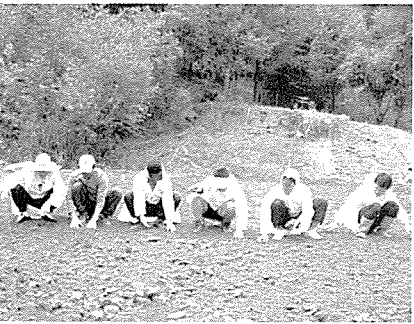


농민의 한숨에 희망의 미소를

지난 두 번의 태풍으로 강원도는 시름에 잠겨 있다.

이제는 자원봉사자의 손길도 줄어들면서 가을걷이를 눈앞에 둔 농민들의 한숨은 늘어만 간다.



이러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들이 나섰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의 터전을 다시 찾도록 사회복지사들의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8월 12일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금활동과 봉사활동은 수해 지역을 복구하고 잔여농산물 수확 지원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가을걷이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수해 복구와 함께 중요한 것이 일손지원인데 이는 많은 수의 수해민들이 농민인 점을 감안해 이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

강원도 인제군 덕산리는 농산물 수확, 배수로 정비, 건물 수리, 중장비 지원 등을 위해 10월 말까지 자원봉사자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서서히 자원봉사자의 손길은 줄어들어 잔여 농산물의 수확시기를 놓칠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남기룡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과 유수명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였으며 지난 8월 26일에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들도 함께 일손을 거들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9월 말까지 주말을 이용하여 매주 수해복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남기룡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사들은 인적자원 활용에는 익숙하지만 직접 참여하는 데는 인색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보다 많은 사회복지사들의 참여를 당부하였다.

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지난 7월 22일, 강릉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들과 함께 강원도 진부면의 수해현장을 방문해 떠내려 온 쓰레기들을 치우고, 가재도구를 씻고, 방죽을 쌓는 등 작은 일손이나마 보태고 돌아왔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9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봉사활동과 모금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봉사활동은 매주 주말중에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신청서 (<http://www.sasw.or.kr> 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로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은행 : 국민은행
계좌번호 : 099 - 01 - 0346 - 061
예금주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문의 : 02-786-2962